

Original Article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 명 주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Affecting Attitudes toward Terminal Care in Nursing Students

Myoung-Ju Jo, R.N., Ph.D.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Busa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plore factors that influence attitudes toward terminal care in nursing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filled by 175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in a metropolitan city B.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WIN 22.0 program. **Results:** Attitudes toward terminal care in nursing student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ommunication competence ($r=0.438$, $P<0.001$), spirituality ($r=0.374$, $P<0.001$), and gratitude ($r=0.318$, $P<0.001$). Communication competence explained 18.7% of the variance in attitudes toward terminal care. **Conclusion:** The study shows communication competence is an important factor for attitudes toward terminal care in nursing stu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mmunication competence enhancement program to foster nursing students with appropriate attitudes toward terminal care.

Key Words: Attitude, Terminal care, Nursing stud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종간호는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1)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평안을 제공하고 죽음 후의 존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2). 임종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긍정적인 태도는 임종환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영적 측면에서 보다 나은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되고 임종을 맞는 환

자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었다는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며 임종간호에 대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2,3). 그러나 많은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로 죽음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하여 임종환자를 돌보는 것에 불안감과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4). 또한 최선을 다해 돌본 환자가 죽게 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서 임종환자를 돌보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4) 임종환자와 가족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Received August 20, 2015, Revised October 1, 2015, Accepted November 3, 2015

Correspondence to: Myoung-Ju Jo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57 Oryundae-ro, Geumjeong-gu, Busan 46252, Korea

Tel: +82-51-510-0775, Fax: +82-51-510-0747, E-mail: nicupicu@naver.com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grants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in 2014.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임종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인으로부터 감정적 지지와 말기질환의 관리, 질병과 관련된 증상,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공받기를 원하지만 많은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에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5). 그러나 의사소통은 임종간호의 필수적인 요소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사랑과 공감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어 평온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1).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들이 나쁜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임종 시까지의 전 과정 동안 환자와 가족들을 지지하고 임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참여를 격려하여 임종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4).

또한 임종간호는 통증조절과 증상완화와 같은 신체적 간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남은 생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본질적이며 인격적인 영성을 근원에서부터 끌어내는 돌봄 작업을 포함한다(1). 사람들은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삶의 의미와 목적, 존재에 대한 실존적인 의문, 자신의 신앙과 신념에 대한 갈등,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와 같은 영적 요구가 증가한다(6). 이때 간호사의 영성은 환자와 가족들이 임종 단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영적 고통에 대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영적 간호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신의 영성이 먼저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2). 간호사의 영성이 개발되어 있을수록 대인관계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여 임종간호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3) 영성 수준이 높은 간호대학생들은 임종간호 태도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는 임상실무에서 간호사와 환자 및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치유력을 촉진하여 삶에 생명력을 주는 긍정적 사고 중의 하나로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타인을 수용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공감하고 자신의 삶을 선물로 인식하여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해 만족과 행복을 느껴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며(7), 임종간호와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 사건 속에서 대상자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슬픔의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긍정적 의미를 찾아 재평가하고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 행동을 할 수 있다(8).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임종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9-11)에서 임종간호교육이 임종간호 태도의 변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간호대학생들은

여전히 생의 끝자락에 있는 환자를 이해하고 돌보는 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다고 하며, 임종간호교육의 경험이 있는 간호사도 임종간호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9). 이는 고통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증상과 통증관리와 같은 신체적 간호에 중점을 둔 현재의 임종간호 교육만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 태도를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12). 선행연구에서 임종환자들의 신체 증상이 조절될 때 가까운 사람들과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영성, 감사의 주고 받음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으며(13), 많은 선행연구들은 임종간호 시 환자와 가족들과의 의사소통(1,4,5,14), 영성(3,6,13,15)과 감사성향(14)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간호사의 영성이 임종간호 태도와 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들(3,6,13,15)도 있지만 임종간호 태도와 관계가 없다고 한 연구(2)도 있으며, Feudtner 등(14)은 감사성향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임종간호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으나 Chi와 Kim(2)은 정신건강이 임종간호 태도와 관계가 있으나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니라고 하는 등 연구결과 간에 일관성이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 자원인 의사소통능력, 영성, 감사성향과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 태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이 긍정적인 임종간호 태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영성, 감사성향이 임종간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영성, 감사성향, 임종간호 태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영성, 감사성향, 임종간호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 태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영성, 감사성향과 임종간호 태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하는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175명이었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1.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중간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0, 변수 10개로 산정한 결과 표본 수는 160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8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5부를 제외한 17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Rubbin(16)이 개발하고 Hur(17)가 국내에 맞게 수정 보완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GICC)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 문항의 5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Hur(17)의 연구에서 0.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0이었다.

2) 영성: 영성은 Howden(18)이 개발하고 Oh 등(19)이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의 5점 척도로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 자원, 관계성, 초월성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응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Oh 등(19)의 연구에서 0.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2이었다.

3) 감사성향: 감사성향은 McCullough 등(20)이 개발하고 Kwon 등(21)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 질문지(Gratitude Questionnaire-6, GQ-6)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6문항의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Kwon 등(21)의 연구에서 0.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89였다.

4) 임종간호 태도: 임종간호 태도는 Frommelt(9)가 개발한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 (FATCOD)을 Cho와 Kim(10)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 15문항과 부정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간호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개발 당시 0.94였고, Cho와 Kim(10)의 연구에서는 0.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0이었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B광역시에 소재하는 일 간호대학에서 시행하였다. 보조 연구원이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자료 관리에 대하여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작성에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에 응한 간호대학생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P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CUPIRB-2014-031)을 받았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 시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 및 참여 중 언제든지 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하였으며 정보 보호를 위해 코드로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하였다.

6. 자료 분석

자료는 SPSS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능력, 영성, 감사성향, 임종간호 태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 태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임종간호 태도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으로 파악하였으며,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파악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중 여학생이 153명(87.4%)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72명(41.1%)이었고,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적성을 고려하여’가 84명(48.0%)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학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가 122명(69.7%)이었다. 최근

1년 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임종경험이 있는 경우가 65명(37.1%)이었다(Table 1).

2. 의사소통능력, 영성, 감사성향 및 임종간호 태도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3점이었고, 영성은 3.39점이었었다. 감사성향은 7점 만점에 5.74점이었으며, 임종간호 태도는 5점 만점에 3.04점이었었다(Table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3. 의사소통능력, 영성, 감사성향과 임종간호 태도 간의 상관관계

임종간호 태도는 의사소통능력($r=0.438, P<0.001$), 영성($r=0.374, P<0.001$), 감사성향($r=0.318, P<0.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의사소통 능력과 영성, 감사

성향이 높을수록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었다(Table 3).

4.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의사소통능력, 영성, 감사성향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공선성 진단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상이었고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 이하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제시된 변인들 중 의사소통능력($\beta=0.317, P<0.001$)만이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의 설명력은 18.7%이었다(Table 4).

고 찰

본 연구에서 임종간호 태도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조사한 간호대학생 3학년 학생의 2.89점(10)과 간호대학생 4학년의 3.06점(1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간호사의 임종간호 태도가 2.63점(2)과 2.78점(3), 2.85점(22)보다는 높았으나 자원봉사자의 3.13점(23)보다 낮았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료인으로 환자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11) 임종간호 태도의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nd The Difference of Terminal Care Attitud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75).

Characteristics	N (%)	Terminal care attitude		
		Mean±SD	t or F	P
Gender				
Female	153 (87.4)	3.04±0.25	0.26	0.799
Male	22 (12.6)	3.02±0.23		
Religion				
Yes	72 (41.1)	3.17±0.30	0.68	0.503
No	103 (58.9)	3.04±0.32		
Reason for entering nursing school				
Aptitude	84 (48.0)	3.09±0.24	2.56	0.057
Employment guarantee	50 (28.6)	3.02±0.24		
Other's recommendation	29 (16.6)	2.98±0.28		
Entrance exam score	12 (6.9)	2.93±0.22		
Satisfaction on major				
Satisfied	122 (69.7)	3.06±0.23	1.60	0.204
Common	45 (35.7)	3.01±0.29		
Dissatisfied	8 (4.6)	2.93±0.25		
Experience with death family or relatives during pervious one year				
Yes	65 (37.1)	3.05±0.25	-0.15	0.884
No	110 (62.9)	3.04±0.25		

Table 2. Mean Score of Variables (N=175).

Variables	Mean±SD	Min	Max	Range
Communication competence	3.63±0.50	2.27	5.00	1~5
Spirituality	3.39±0.50	1.86	4.71	1~5
Gratitude	5.74±0.87	3.33	7.00	1~7
Terminal care attitude	3.04±0.25	2.37	3.70	1~4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75).

Variables	Spirituality	Gratitude	Terminal care attitude
	r(P)	r(P)	r(P)
Communication competence	0.643 (<0.001)	0.507 (<0.001)	0.438 (<0.001)
Spirituality		0.583 (<0.001)	0.374 (<0.001)
Gratitude			0.318 (<0.001)

Table 4. Predictor of Terminal Care Attitude (N=175).

Variables	β	t	P	R ²	Adj R ²	F(P)
Communication competence	0.317	3.49	0.001	0.192	0.187	41.064 (<0.001)
Spirituality	0.120	1.244	0.215			
Gratitude	0.087	1.023	0.308			

다. 간호사의 경력에 따라 임종간호 태도를 비교한 연구(22)의 결과 신규간호사의 임종간호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임종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종상황을 접하게 되어 죽음을 공포스럽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에서 체계적인 임종간호 교육을 실시하여 간호대학생의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임종간호 태도를 가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3점으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조사한 간호대학생의 3.47점(24),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3.67점(23)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의 의사소통능력을 중간 수준 보다 약간 더 높은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간호는 돌봄의 과정 중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의 수준을 계속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영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39점으로 중간 수준이었으며,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조사한 간호학생의 3.42점(25)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선행연구(26)에서 간호사의 영성 수준은 호스피스 팀원인 의사, 성직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중에서 가장 낮았으며, 영적 돌봄 제공 정도도 또한 의사보다는 높았지만 성직자나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보다 낮았다. 이는 간호사들이 전인 간호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영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고(4), 영적 돌봄을 성직자나 가족의 영역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15,26). 앞으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가 되어 전인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감사성향은 7점 만점에 평균 5.74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조사한 5.62점(25)과 5.58점(27), 국군간호사관학교 학생의 5.41점(28)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감사성향이 높으면 공감과 수용력이 높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유연한 대인관계를 가지며, 고통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이면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며 경험을 성장의 자원으로 활용한다(20). 이러한 감사성향은 성격 특성이기도 하지만 감사일기 쓰거나 감사표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28) 앞으로 간호사가 되어 전인적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 태도는 성별,

종교 유무, 간호학과 지원 이유, 전공 만족도, 최근 1년 이내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의 임종경험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2,3)에 따라 임종간호 태도에 차이가 없었던 것과 유사하였으나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는 종교 유무에 따라 임종간호 수행에 차이가 있어(15) 본 연구와 달랐다. 또한 최근 1년간 가까운 사람의 임종경험 여부에 따라 임종간호 태도에 차이가 있었던 연구(22)와도 달랐다. 이는 간호사들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임종 상황을 접하기 때문에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받지만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임종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종 상황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결과 의사소통능력이나 영성,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임종간호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즉, 타인과 공감적 의사소통 경험이 높을수록, 현재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숙고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 갈수록, 삶의 과정에서 긍정적 신념이 높을수록 임종간호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간호역량이 높았던 연구(29)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임종돌봄 태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연구(23)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성과 임종간호 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논문은 없으나 임상간호사의 경우 영성과 임종간호 태도(3) 및 임종간호 수행(15)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던 연구와 영성과 임종간호 태도가 유의한 관계가 없었던 연구(2)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영성과 임종간호 태도와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성과 임종간호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논문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성이 임종간호 태도(3) 및 임종간호 수행(15)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과 유사하였으나, 영성과 임종간호 태도가 상관관계가 없었던 연구(2)도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영성과 임종간호 태도와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감사성향이 임종간호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던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긍정적 정서의 수준이 높을수록 임종간호 시 편안함을 느끼고 임종간호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2)와 맥락이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이었다, 설명력은 18.7%였다. 간호사는 임종간호 시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고 가족의 역동과 환자와 가족이 표현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을 인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된다(5).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적합한 행동으로 대처할 수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여 공감 능력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의사소통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 간호교육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훈련을 위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상담 과목 등이 교양 또는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5,14)들은 시뮬레이션, 역할극, 토론, 성찰적 글쓰기, 임상현장 사례관리와 같은 다양한 기법을 이용한 교육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추후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 상황과 관련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영성과 감사성향은 임종간호 태도와 상관관계는 있었지만 회귀분석 결과 영향요인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영성이 임종간호 태도의 영향요인이 되지 않았던 것(2)과 유사하였으나, 영성이 임종간호 수행의 주요 영향요인이었던 결과(15)와는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의 영성이 임종간호 태도와 관계가 없었던 연구(2)에서는 대상자 중 29세 이하가 55.4%였으나 영성이 임종간호 수행에 영향력이 큰 요인이었던 연구(15)에서는 대상자 중 40세 이상이 50.3%였다. 또한 30세 이하의 간호사가 31세 이상보다 다양한 직무경험 및 대인관계 경험이 적어 임종간호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고 한 연구(3)에서와 같이 연령이 증가하면 삶에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영적 존재에 대하여 깊이 자각하면서 임종간호 태도가 변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아직 영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임종경험이 부족한 간호대학생이었으므로 영성이 임종간호 태도의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 근무할 때 긍정적인 임종간호 태도를 가지고 임종환자와 가족들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영성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3). 간호대학생의 영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신학이나 철학적 의미에 중점을 둔 강의중심의 교육에만 한정하지 않고, 성찰, 그룹 토의, 사례발표, 영화 감상과 같이 다양한 학습법을 이용한 훈련과 봉사활동 경험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영성의 의미를 자각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감사성향은 임종간호 태도의 영향요인이지는 않았지만, 감사성향이 의사소통능력 및 임종간호 태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타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죽음을 수용하고 삶의 의미에 대한 내면적 성찰을 통해 임종간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30) 간호대학생들은 대부분 임종 상황을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자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하여 임종간호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 태도는 의사소통능력, 영성, 감사성향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의사소통능력은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으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계 중심 모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방법: 대상자는 B광역시 소재하는 일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75명이었으며,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WIN 22.0을 이용하여 t 검정, ANOVA 및 피어슨 상관관계분석과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간호대학생과의 임종간호 태도는 의사소통능력($r=0.438$, $P<0.001$), 영성($r=0.374$, $P<0.001$), 감사성향($r=0.318$, $P<0.001$)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으로서 설명력은 18.7%였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의사소통능력이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추후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심단어: 태도, 임종간호, 간호학생

REFERENCES

1. Lee EY. A study on the meaning of love, empathy as the basis of hospice philosophy. *Philosophical Studies* 2015;51:106-42.
2. Chi KA, Kim EJ. Factors influencing nurse's attitude toward hospice.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5;14:285-91.
3. Ji SI, You HS. The impact of clinical nurses' terminal care attitude and spiritual health on their terminal care stress.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14;17:232-40.
4. Jo KH, Kim GM.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the preferences for care near the end of life among nurses and physicians. *Korean J Med Ethics* 2010;13:305-20.
5. Xie J, Ding S, Wang C, Liu A. An evaluation of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during practical clinical training. *Nurse Educ Today* 2013;33:823-7.
6. Taylor EJ.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of spiritual needs among patients with cancer and family caregivers. *Oncol Nurs Forum* 2006;33:729-35.
7. Emmons RA, Stern R. Gratitude as a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 *J Clin Psychol* 2013;69:846-55.
8. Watkins PC, Grimm DL, Kolts R. Counting your blessings: positive memories among grateful persons. *Current Psychology* 2004;23:52-67.
9. Frommelt KH. The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nurses'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erminally ill persons and their families. *Am J Hosp Palliat Care* 1991;8:37-43.
10. Cho HJ, Kim ES. The effect of the death education program on the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of nursing student.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05;8:163-72.
11. Kim SN, Kim HJ, Choi SO. Effects of a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ducation program including meaning in life on attitudes toward end-of-life care and meaning in lif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an Acad Soc Nurs Edu* 2011;17:454-63.
12. Murto EM, Cantoni MN, Rabhansi MM, Villar MJ. A perspective of end-of-life care education in undergraduate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in Buenos Aires, Argentina. *J Palliat Med* 2012;15:93-8.
13. Prince-Paul M.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ve acts, social well-being, and spiritual well-being on the quality of life at the end of life in patients with cancer enrolled in hospice. *J Palliat Med* 2008;11:20-5.
14. Feudtner C, Santucci G, Feinstein JA, Snyder CR, Rourke MT, Kang TI. Hopeful thinking and level of comfort regarding providing pediatric palliative care: a survey of hospital nurses. *Pediatrics* 2007;119:e186-92.
15. Seo YS, Sung KW. Influence of nurses' spirituality on hospice nursing intervention in long-term care facilities. *J Korean Gerontol Nurs* 2012;14:12-20.
16. Rubin RB. The validity of the communication competency assessment instrument. *Commun Monogr* 1985;52:173-85.
17. Hur GH.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 Journalism Communication Studies* 2003;47:380-408.
18. Howden JW.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ual assessment scale [dissertation]. Texas: Texas Woman's Univ.; 1992. English.
19. Oh PJ, Chun HS, So WS. Spiritual assessment scale: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Korean version. *Asian Oncol Nurs* 2001;1:168-79.
20. Mccullough, ME, Emmons RA, Tsang JA.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 Pers Soc Psychol* 2002;82:112-27.
21. Kwon SJ, Kim KH, Lee HS.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gratitude questionnaire. *Korean J Health Psychol* 2006;11:177-90.
22. Hong EM, Jun MD, Park ES, Ryu EJ. Death perceptions,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 death in oncology nurses. *Asian Oncol Nurs* 2013;13:265-72.
23. Lee IS. A study on the impact of attitude care of the dying communication competence, burnout on hospice volunteer on volunteer activity continuance intention [master's thesis]. Jinju: Gyeongsang Univ.; 2015. Korean.
24. Lee OS, Gu MO.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Industrial Cooperation Soc* 2013;14:2749-59.
25. Jo MJ, Jun WH. Effects of hope and gratitude on spirituality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4;20:569-76.
26. Yoo YS, Han SS, Hong JU, Lee SM, Seo MJ, Park CS. Spiritual care and spiritual wellness of hospice team members. *J Korean Acad Funda Nurs* 2006;13:285-93.
27. Jun WH, Cha KS, Lee KL.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5;21:276-84.
28. Kim HK, Sim HO, Moon SN, Yi JM. The effects of a gratitude enhancement program on gratitude disposition, happiness and life adjustment of cadets at the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J Military Nurs Res* 2014;32:69-81.
29. Lee MH, Kim HK, Jeong SH, Moon IO. Effects of task

performance style in nursing management practicum on problem-solving and nursing competency according to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in* 2011;17:106-14.

30. Mutto EM, Errazquin A, Rabhansi MM, Villar MJ. Nursing education: the experience, attitudes, and impact of caring for dying patients by undergraduate Argentinian nursing students. *J Palliat Med* 2010;13:1445-50.